

가려지고 외면받는 우크라이나 사건의 이야기

라틴아메리카사회주의

아조프 제철소 지하에 있다 나온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증언이다. 충격적이다. 문제는 이렇다. 나탈리아 우스마노프라는 이름의 민간인 인터뷰를 독일의 유수언론 슈피겔 *Der Spiegel*지가 자사 채널에 게재했다가 '내용상 불일치'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해 버렸다. 즉 자신들이 '답정너'와는 전혀 다른 증언 내용이 등장하자 해당 부분을 삭제해 버린 것이다. 인도적 회랑을 리가 방해하고 이들을 못나오게 방해했어야 하는 데, 이 증언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일을 어찌면 좋은가. 정해진 답이 안나오면 나올 때까지 바꾼다??? 독일 언론이 그것도 슈피겔이 이 지경이다. 아래는 독일어로 된 자막을 내가 번역한 것이다.

그들 [아조프연대 병사들]은 우리가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밖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똑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 '바깥은 폭격을 맞아 다 파괴되었고 어디도 갈 수가 없다.'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거기에는 당신들을 해칠 나쁜 젊은 놈들이 있다.

우리는 인도적 회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라디오를 갖고 있었고 방송을 수신했다. 우리는 회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나갈 수가 없었다. 그들은 우리가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를 병커에 붙잡아 두었다 (*festgehalten*). 그리고 우리가 못나가게 했다. 우리는 라디오를 통해 들었다. "회랑, 회랑, 회랑 하지만 어떻게 나가지?" 아조프 병사들은 우리를 못나가게 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들을 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바깥에는 당신들을 즉각 사살할 나쁜 놈들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나가게 둘 수 없다. 그들[아조프 병사들]은 마치 우리 안전을 걱정하는 것처럼 그 뒤에 숨어 있었다." 병커로 돌아 가"라고 했다. 우리는 스스로 아조프제철소에 갔다. 그곳에 갔다. 남편과 나는 거기서 일했다. 우리는 2월 26일 그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곳에 갔다.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아조프 제철소는 민간시설이고 우리 직장이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만일 내게 이런 일이 생기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거기에 갔다. 우리는 그곳이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라디오를 통해 들었다. 하지만 아조프 병사들은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병사들이 와서 "당신들은 회랑을 통해 나가길 원하는가?"를 물어 봤을 까? 아니다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라디오방송을 듣고 알았다. 우리는 나가고자 시도했지만 그들이 우리를 나가게 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한 목소리로 우크라이나로 가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역자 주: 제철소에서 나온 민간인은 우크라이나로 갈지 러시아 통제지역으로 갈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만약 우리가 돌아갈 곳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마리우폴이지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에게 우크라이나는 국가로서 죽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짓은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다.

아마 이런 치명적인 내용이라면 앞으로 유튜브에서도 삭제될 거 같다 ㅜㅜ

<https://m.youtube.com/watch?v=FOkwT20PrSc&feature=share>

[v=FOkwT20PrSc&feature=share](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20714643953298&id=100080442895409)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20714643953298&id=100080442895409

- dc official App